기름값 둔화에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 복귀

전남광주 2.8%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쌀·고등어·상수도료·보험서비스료 등 강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최고가격제 등으로 둔화하고 농산물 가격이 한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20.3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과 6월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으나,

지난달에는 2%대로 내렸다. 통합 이전 광주 소비자물가는 5월 3.3%·6월 3.1%, 전남 소비자물가는 5월 3.5%, 6월 3.5% 각각 올랐다.

부문별로는 상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상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도 2.4%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쌀(10.6%), 고등어(12.7%), 상수도료(3.7%),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관리비(4.3%)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시민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통합 이전 기준으로 보면 광주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4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상품 물가는 3.0%, 서비스 물가는 2.6% 각각 올랐다.

전남은 소비자물가지수가 120.74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광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높았다. 상품 물가는 3.5%,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와 전남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8%로 3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진, 최고가격 인하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완도 해조류 가공기업, 중국서 60만달러 수출 MOU

하나물산, 전남TP 지원받아
광저우·청두 시장개척 성과

유한회사 하나물산이 최근 중국(광저우·청두) 시장개척단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 2개사와 총 6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의 지원을 받은 완도 해조류 가공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6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력 성과를 거뒀다.

전남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완도군이 지원하는 '완도 수산양식산업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지원사업(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수혜기업인 유한회사 하나물산이 최근 중국(광저우·청두) 시장개척단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 2개사와 총 6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물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현지 식품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고 바이어들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완도산 해조류의 품질 경쟁력과 간편식, 프리미엄 스낵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성을 인정받아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상담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들은 완도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우수한 품질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춘 해조류 스낵과 간편식 등 수출형 제품 개발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나물산은 전남TP의 지원을 받아 기존 원물 중심 제품에서 벗어나 현지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해조류 스낵과 수산가공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서 확보한 바이어 의견을 시제품 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반영하고, 샘플 테스트와 제품 검증을 거쳐 정식 수출 계약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본 시장개척단에도 참가해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유승진 하나물산 대표는 "전남TP의 지원으로 완도산 해조류를 활용한 수출형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현지 바이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지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완도산 해조류 가공품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완도 수산양식 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물산은 완도산 김·미역·다시마 등을 활용한 해조류 식품 가공 전문기업으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형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광주은행, 폭염 속 고흥복지관서 삼계탕 나눔봉사 광주은행은 지난 3일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포츠 심판 전문인력 양성
GICON, 9일까지 자격취득 교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역 이스포츠 산업을 이끌 전문 심판 양성에 나선다.

GICON은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이스포츠 심판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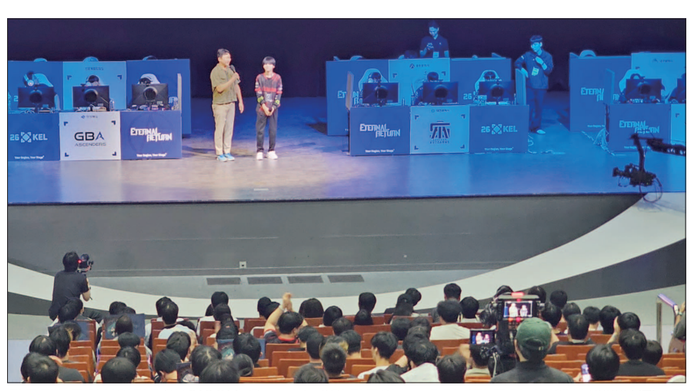
이번 교육과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스포츠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인재들의 심판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이스포츠협회(KeSPA) 전문 강사진이 맡아 이스포츠 심판의 역할과 경기 규정, 대회 운영 실무, 경기 판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모든 과정을 이수한 뒤 심판 자격 취득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GICON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로게이머뿐 아니라 심판과 지도자, 운영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GICON은 '이스포츠 지도자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생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25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2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 주경기장에서 '2026 KEL(한국이스포츠리그) 미드시즌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GICON, '2026 KEL 미드시즌컵' 성황

전국 12개 지역 연고팀 참가…광주 슬래셔 최종 4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2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KEL(한국이스포츠리그) 미드시즌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이스포츠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KEL 이터널리턴 종목 리그 상위 12개 지역 연고팀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연고로 둔 광주 슬래셔와 전남 e스포츠를 비롯한 전국 12개 팀이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GICON의 지원을 받는 광주 슬래셔는 리그 5~12위 팀이 맞붙은 준결승에서 2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8라운드까지 접전을 이어간 끝에 최종 4위를 기록하며 하반기 리그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인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는 대회 첫날 430명, 둘째 날 528명 등 이틀간 958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다.

백창기 GICON 콘텐츠진흥본부장은 "지속적인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선 지역 연고팀의 성장과 리그의 성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미드시즌컵에 전국의 관객들이 찾아주신 점이 고무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